

엑스포 기업 유치 늘어 공장용지난 심각한데…

율촌2산단 지정 승인후 11년째 방치

율촌 제2산업단지가 산단 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여수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전남도는 제조업체 등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1997년 당시 건설교통부로부터 여수시 율촌면과 소라면 일대 8.19㎢를 율촌 제2산업단지로 지정 승인을 받았다.

전남도는 이후 1999년 율촌 2산단 부지를 해양수산부와 공동개발하기로 하고, 광양항 3단계 항로 준설로

투기장으로 활용한 뒤 산단을 조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율촌 2산단 부지가 예산 확보 어려움 등을 내세워 개발을 미루고 있다"며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이후 도로와 철도, 공항 등 사회간접시설이 대폭 확충되면서 기업의 입주가 많아지고 있는 데도 산단 부지가 없어 업체들이 밭길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수상공인들은 최근 여수를 방문한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등에게 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율촌 2산단이 조속히 조성돼야 한다고 건의하는 등 산단 조성을 끊임없이 촉구하고 있다.

여수상의 관계자는 "산단 개발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전남도가 예산 확보 어려움 등을 내세워 개발을 미루고 있다"며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이후 도로와 철도, 공항 등 사회간접시설이 대폭 확충되면서 기업의 입주가 많아지고 있는 데도 산단 부지가 없어 업체들이 밭길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상의 관계자는 "율촌 2산단은 국민 임대산업단지로 조성하든지, 민자를 유치하든지 조속히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율촌 2산단 개발 주체가 지난 2003년 전남도에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관됐다"며 "2003년 전까지는 율촌 제1산단 개발에 전념했기 때문에 제2산단을 개발할 여력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율촌 2산단 개발 용역을 진행 중이며, 내년 5월께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본격 개발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수=박영규기자 ykpark@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16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盧 “청와대 기록 돌려 주겠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6일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기록물 반출 논란과 관련, “기록사본을 돌려 주겠다”면서 “가지려 오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라고, 보내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를 통해 “이미 퇴직한 바서관, 행정관 7~8 명을 고발하겠다고 하는 마당이나 내가 어떻게 더 버티겠느냐”며 이렇게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내 지시를 따랐던 힘없는 사람들이 어떤 고초를 당할지 알 수 없는 마당이나 더 버틸 수가 없었다”고 반환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수차례 만남 및 전화 통화를

통해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문화 하나만큼은 전통을 확실히 세우겠다”고 말한 사실을 소개한 뒤 “그 말씀을 믿고 저번에 (열람권 보장을 협조해달라고) 전화를 드렸더니 ‘보도를 보고 비로소 알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어 “부속실장을 통해 연락을 주겠다고 했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서 다시 전화를 드렸다”면서 “이번에는 연결이 되지 않았고 몇 차례 미루고 하더니 결국 ‘담당수석이 설명드릴 것’이라 부속실장의 전갈만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다’며 ‘기록을 보고 싶을 때마다 전직 대통령이 전화 걸을 때 국가 기록원으로 가야 하느냐’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정보화 시대에 맞는 열람 방법이고, 전직 대통령 문화에 맞는 방법이냐’고 반문했다.

李대통령에 공개 편지

‘반출 논란’ 불만 토로

처지가 도저히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이명박 대통령을 오해해도 크게 오해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관장과 상의할 일이나 그 사람이 무슨 힘이 있느냐”고 반문한 뒤 “국가기록원장은 스스로 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이 대통령이 나서서 열람권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다”며 “기록을 보고 싶을 때마다 전직 대통령이 전화 걸을 때 국가 기록원으로 가야 하느냐”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정보화 시대에 맞는 열람 방법이고, 전직 대통령 문화에 맞는 방법이냐”고 반문했다.

/연합뉴스

이건희 前 회장 집유·벌금 1,100억

법원, 에버랜드 편법 증여 무죄·조세포탈 혐의 유죄

재판부는 에버랜드 CB 편법증여 혐의에 대해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등 절차의 흡결이 일부 있는 하지만 인수권을 쟁취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11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민병훈 부장판사)는 16일 이 전 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하고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면소 판결했다.

차명주식거래를 통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 100억원을 선고했다.

또 이학수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관련 확정 판결이 있었던 시점은 기준으로 2003년과 2004년도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유 5년 및 벌금 140억원을, 2005~2007년도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유 5년 및 벌금 60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학수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관련 확정 판결이 있었던 시점은 기준으로 2003년과 2004년도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유 5년 및 벌금 140억원을, 2005~2007년도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유 5년 및 벌금 60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기준주택을 팔 경우에는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투자 수요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입임대주택을 구입한 뒤 이를 5년만 임대하면 양도세 증과와 종부세 합산,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도 전용 85㎡ 이하에서 전용 149㎡ 이하로 확대하도록 했다.

사실과 동일성이 없어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CB발행으로 인해 에버랜드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특검의 공소사실에 증거가 없다고 봤다.

반면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인 1998년말 이전에 차명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것은 부정한 조세포탈로 볼 수 없지만 1999년 이후의 경우에는 양도자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더라도 입출금 거래 내역 등을 종합하면 부정한 행위로 봄아 한다”며 일부 유죄 판결했다.

/연합뉴스

김용철 변호사

“판결 실망 스럽다”

삼성그룹 비리 의혹을 폭로했던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는 16일 이전 회장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 100억원을 선고했다.

또 이학수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관련 확정 판결이 있었던 시점은 기준으로 2003년과 2004년도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유 5년 및 벌금 140억원을, 2005~2007년도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유 5년 및 벌금 60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타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대해 내가 뭐라고 말할 입장도 아니다”면서도 “결과를 보니” 할 말조차 없다.

그는 “재판결과에 따르자면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건희 전 회장)을 불러다 놓고 수사하고 재판한 것 아니냐.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며 재판부와 겸찰을 비꼬기도 했다.

/연합뉴스

여수엑스포 세계 최고 박람회 만들 것”

박지사, 사라고사서 홍보



박지사는 이날 사라고사 박람회장에 설치된 한국관을 방문, 관계자들을 격려한 뒤 “사라고사 박람회는 여수세계박람회 규모 및 형식이 유사하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배운 경험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 오는 2012년 여수박람회를 세계 최고의 박람회로 만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스페인에서 열리고 있는 ‘사라고사 박람회’는 BIE(세계박람회기구)가 인정한 국제박람회로 ‘물과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주제로 지난 14일부터 오는 9월 14일까지 93일동안 개최된다.

/연행기자 redplane@

지방 미분양주택 세제 혜택 확대

정부, 세법 개정령안 의결

정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일괄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지방 미분양주택 매입으로 2주택자가 되더라도 2년 이내에

기준주택을 팔 경우에는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투자 수요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입임대주택을 구입한 뒤 이를 5년만 임대하면 양도세 증과와 종부세 합산,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도 전용 85㎡ 이하에서 전용 149㎡ 이하로 확대하도록 했다.

/박경기자 jkpark@kwangju.co.kr

日만정

- 김종우



정치인들이 책임지고 지키라고…

분식

HOME CON

홈컨 不動産 리서치

상무지구 한국은행 뒤 062) 385-9994

(부동산) 프로젝트仲介·開發·리서치 선언!



공동대표 김윤삼
- 호남대 부동산학 석사
- 한국부동산학회 연구원
- 부동산부동산학회 출강
- 부동산부동산학회 학회
- TV9999, 새마을금고 등
- 부동산부동산학회 회장



공동대표 박기수
- 성균관대 대학원
- 경상대학교 석사
- 부동산부동산학회 학회
- TV9999, 새마을금고 등
- 부동산부동산학회 회장

(2억 이상) 분식된 물건 수

(경비증) 견

(2억 이상) 의뢰 고객수

(경비증) 분

* 2008년 7월 17일

연호이엔씨(주)

전남 순천시 가좌동 182-1

대표이사 박보길 박주원

* 2008년 7월 17일

연호이엔씨(주)

대표이사 박보길 박주원